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 소개

### □ 최신 세계헌법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대법관 6:3의 의견으로 피상고인인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인종고려적(race-conscious) 입학 정책이 인종 요소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목적을 갖추지 못하였고, 인종 요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유의미한 종료 시점을 두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수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결정에서, 외국법의 혼인 적령(適齡)에 따라 성립한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하여, 적어도 당사자 중 1인이 혼인 당시 16세 미만이었다는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주법 조항 등의 위헌성> 결정에서, 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형집행법 조항들이 기본법 제2조 제1항(일반적 인격권)과 연계한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재사회화(Resozialisierung) 명령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저장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에서, 2004년 환경헌장(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전문에 근거하여 환경의 보호가 헌법

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 등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건강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결정에서, 2004년 환경헌장 전문에 따르면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미래세대의 역량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가스 공급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신규 설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의 일부 완화 등을 규정한 위 법률은 가스 및 전력 공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이번 호에서는 모리셔스 대법원을 소개하였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 통신원의 <대마 합법화에 관한 독일의 헌법적 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에서는, 대마의 무허가 재배·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마약거래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3개 구(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을 다루었던 연방헌법재판소의 1994년 합헌결정을 재검토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1994년 합헌결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